

확인하고 싶으시면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 정보마당 신종유해 물질정보, 위해예방정책국 홈페이지

(www.foodwindow.go.kr) 전문정보에서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수입검사절차 등 수입식품 정보사이트 오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와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영업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수입식품 정보사이트' (www.foodnara.go.kr/importfood)를 9월 1일 오픈하였습니다.

- 동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는 구매한 수입식품의 식약청 검사 여부, 부적합 식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식품 관련 법령 및 제도,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 등의 정보와 수입한 식품의 검사 진행에 대해서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내 수입식품의 국가별·식품별 통계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청은 매일 500명이상 동 사이트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앞으로도 소비자에게는 수입식품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영업자에게는 '수입신고 요령 안내 동영상' 및 '수입검사절차 동영상'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소비자는 수입 식품의 상세한 정보를, 민원인은 수입식품의 검사 진행 단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실시

9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빙과류, 과채음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롯데제과의 빙과류 1품목(딸기 스쿠류)과 (주)웰팜의 과·채주스 3품목(5無주스 키즈 100% 유기농

과일야채, 5無주스 키즈 100% 유기농 오렌지, 5無주스 키즈 100% 유기농 포도) 등 4개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아 9월부터 생산 유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으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마크나 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더불어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관련 제품을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끼상품 이용 광고 적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기기 위하여 텔레비전·라디오 및 인터넷에서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를 오는 10월부터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단속할 대상에는 과자·초콜릿·사탕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에 장난감이나 연예인 대형사진 등의 무료 제공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이외 컵 등 물건의 할인 판매 등이 포함됩니다.
- 식약청은, 이번 단속은 변별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소위 ‘미끼상품’을 이용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무분별한 구매를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3. 22) 이후 인터넷 포탈업체, 관련 협회 및 업체와 동 법률의 입법취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간담회 등을 열고 업계 스스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의 미끼상품 광고 단속에 적발되면 300만원이상 1,000만 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